

# 달러 강세에도 수출기업은 '곡소리'

### 올 2분기 기업 한곳당 순이익 평균 40억원씩 ↓ · 부채는 390억원씩 ↑ 민주 한병도 의원 "금리 인상 속 버틸 수 있도록 실질적 금융지원 고민을"

올해 2분기 수출기업의 순이익은 평균 40억원이 감소하고 부채는 평균 39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조사가 발표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2년 1·2분기 수출기업 부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기업마다 평균 40억원씩 감소했으며 부채는 39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말 상장기업 중 수출기업은 412개사였는데, 전년 동기(509곳) 대비 19%(97곳)감소한 수치였다. 이 기간 한국은행의 분석대상인 상장기업 수는 2,420개사에서 2,398개사로 22곳 줄었는데, 이 중 수출기업은 97개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은 수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수익성 역시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기업 한 곳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23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39억 8,000만원)감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 역시 263억 4,000만원으로 10.6%(31억 4,000만원) 줄었는데, 평균 매출액은 4,279억 9,000만원으로 5.27%(214억 3,000만원) 소폭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수출기업 한 곳당 평균 부채가 51.07억 7,000만원으로 전년 동

기 대비 388억 9,0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을 금융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꼽힌다.

1미만인 한계기업의 평균 부채는 5,344억 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566억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2배 가까이 증가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가 되나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될 수 있는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긴축재정도 중요하지만, 부채를 버티지 못하고 수출기업들이 이탈하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는 12일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이 도내 주요 국가예산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 기재부 예산실 간부들, 도 주요사업 현장 방문

### 탄소산업진흥원 · 현대차 전주공장 등서 현장 목소리 청취 김관영 도지사, 전북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 의지 피력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2일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이 도내 주요 국가예산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각 지역 주요 사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기재부 현장방문의 일환이다.

이날 전북을 방문한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북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산업, 수소산업, 탄소산업 거점 사업장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먼저 동물용의약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익산 인수공동전염병연구소 일원을 방문해 동물용의약품산업 육성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올해 9월 착공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한국탄

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수소상용차 생산라인 등 관련 시설들을 둘러보고 전북도의 탄소·수소산업 육성 현황과 발전계획,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 전북도는 탄소·수소·동물용의약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관련 계획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사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중점 사업에 대한 예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현장 방문 후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와 전북도 민선 8기 역점 추진 정책과 2023년 국가예산 중점사업을 논의했다. /김경수 기자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의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재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재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재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국회 심의단계 증액이 필요한 주요사업 10건에 대한 예산변경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주요사업들이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안 미반영사업 중심으로 중점 확보 사업을 재정배부 국회 심의단계에서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 권요안 도의원, 완주 비봉 악취배출 밀집지역 합동점검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완주 비봉면 소재 폐기물 및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밀집 지역을 방문해 악취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등 관계기관과 주민이 합동으로 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권요안 도의원, 서남읍 완주군의회 의장, 김규성 군의원, 전북도·완주군 관련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을 방문한 권 의원은 비봉면 인근 주민 피해의 당위성이 시급한 만큼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이를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지도·점검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기업 지원책이 있을 때 기업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추가예산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현장 점검 후 가진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주민대표들은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 선정 전 1년간 실시하는 악취 실태조사를 요청했으며 도 및 군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권요안 의원은 "건강권 및 환경권 등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는데 몇 배

의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단속 등의 사후관리보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사업장이 불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전용공업·산업단지에서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시 도지사 직권 혹은 해당 시·군 요청 또는 환경부장관이 대상지역을 실태조사 후 도지사에게 지정할 것을 요구해 지정된다. /김경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도서지역 응급환자 구조 핵심 연안구조정 여전히 모자라

### 중부 6척 · 동해 2척 미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현황'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서지역에서 이송된 응급환자는 총 2,919명으로 이중 2,872명이 생존해 이송시 생존율이 98.4%에 이른다.

구조수단별로는 합정 1588명(54.5%), 연안구조정 1,141명(39%), 헬기 190명(6.5%)로 나타났다. 특히 연안구조정은 파출소에 배치돼 도서지역의 최일선에서 긴급출동이 가능해 그 유용성이 더 빛을 발한다.

현재 연안구조정은 전국 파출소 94곳에 88척이 배치돼 있다. 중부배치된 곳을 제외하면 중부청에 6척, 동해청에 2곳 등 8곳이 여전히 연안구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해경은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및 구축 용역에 예산에서 요구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반영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익산시는 그동안 익산역 광역복합환



승센터 건립 추진이 정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5)에 반영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와 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익산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복합개발이 우선인만큼 익산역 철도차량기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이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익산역역사에 광역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도 받아야 한다. 또한 익산역내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국토부가 수행하는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및 구축' 용역에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반영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경수 기자

섬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최일선의 파출소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94곳의 파출소에 최소 1대 이상의 연안구조정이 배치돼야 시간과의 싸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중부청에 6척, 동해청에 2곳의 파출소가 연안구조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 시기에 전국 모든 파출소에 연안구조정을 배치해 도서지역 응급환자 구조에 단점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선박회재 대응시 구조요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보호장비인 화재보호장비와 관련해 전국 94곳 파출소 중 구조거점파출소로 지정된 26곳에만 장비를 보급(2세트씩)하고 있어 나머지 68곳의 파출소 구조요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승-김대환 기자

##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옥정호 녹조발생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2일 임실 옥정호 일원을 방문해 녹조 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k-water 삼진강댐지사를 방문하여 삼진강댐 용수 공급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함께 옥정호 녹조 발생 현황 및 제거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어서 위원들은 순찰선에 탑승하여 운암대교, 운암 취수구 및 철보발전 취수구 등을 둘러보며 옥정호 수면 녹

조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현지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임실 옥정호는 도민의 생활용수원이기에 더 이상 녹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환경복지위원회는 관련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전라북도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보다 나은 농어촌 **축! 전주매일 창간**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사랑은 내리사랑? 이제 농지연금으로 올림사랑 하세요~**

인생의 굵이마다 자식 걱정 끝이 없던 우리 부모님  
이제껏 받아온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선물하세요

**농지연금이란?**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필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작이나 임대로 인한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승계형' 가입 시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7770 (www.fb.or.kr)**

**지원대상**

· 농지 소유인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세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광부상 지역이 전담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인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 (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농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지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kfn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연금**